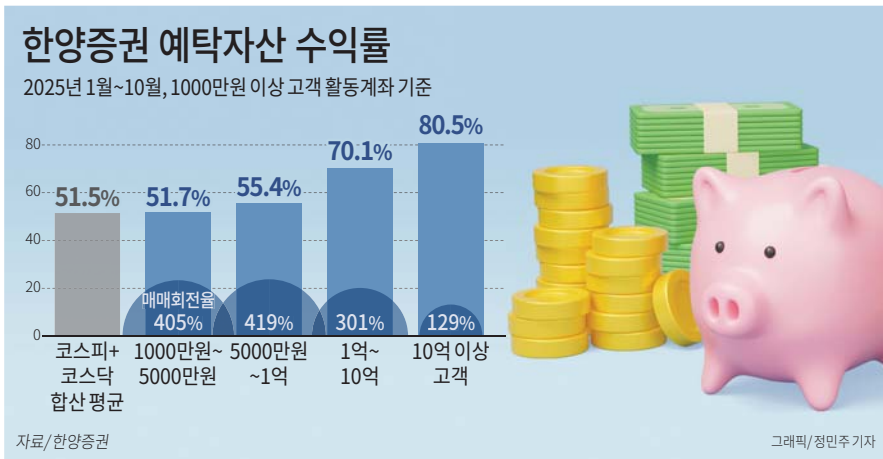


‘대형주로 수익률 높였다’… 고액자산가, 안정적 운용 지속

대형주 중심 압축 투자로 수익률 ↑
회전율 낮춘 안정운용 성과로 연결
반도체·방산 등 주도주 선제 매수
투자 흐름, 안정·우량 자산 선호

보수적으로 투자 종목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진 고액자산가들이 올해 일반 개인 투자자보다 더 높은 투자 수익률을 기록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일반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반도체와 방산, 조선 섹터 등에 투자했다. 다만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해 수익률을 극대화했고, 같은 업종 내에서도 실적 전망이 어두운 종목은 피하면서 더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1일 한양증권이 올해 1~10월 예탁자산 1만원 이상 고객의 활동 계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산 10억 원 이상 고액 계좌의 평균 수익률은 80.5%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코스피·코스닥 합산 평균 상승률(51.5%)을 크게 웃도는 수준



이다.

1억원 이상 계좌도 평균 70.9%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어 5000만~1억원 구간 55.4%, 1000만~5000만원 51.7%로 모든 자산 구간에서 시장 평균을 상회했다. 종합적으로 1000만원 이상 계좌의 평균 수익률은 57.3%였다.

◆자산가는확실한 종목만 샀다

고액 자산 계좌일수록 수익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상위 자산 계좌들이 대형주 중심의 안정적 포지셔닝과 낮은 회전율을 유지하는 전략을 공통적으로 보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포트폴리오 구성에서도 상위 계좌 대부분은 5개 내외 종목으로 압축된 ‘소수 종목 집중형’ 포트폴리오를 보유했다.

광범위한 분산 투자보다 대형주·주도주 집중 전략을 통해 강세장에서 상승

폭을 극대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상위 계좌는 반도체·방산·조선 등 올해 시장을 주도한 핵심 업종의 대형주에 선제적으로 포지션을 구축했는데, 반등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변동성을 견디 끝에 성과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고 한양증권은 전했다.

대표 보유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등이 꼽혔다.

한양증권 관계자는 “고액 자산 계좌일수록 시장을 이끄는 업종 중심으로 핵심 종목 수를 최소화해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개별 종목보다는 대형주·주도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부자들 따라 사불가

내년 고액자산가들의 투자흐름도 비슷할 전망이다. KB금융 경영연구소가 올해 7월 말부터 9월 6일까지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내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는 등 국제 정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단 시장을 지켜보는 ‘관망세’가 커진 것이다.

주식에 대한 믿음도 강했다. 부자들은 앞으로 1년 이내 단기에 고수익이 예상되는 투자처로 주식(응답자의 35.5%) 다음으로 금·보석(33.5%)을 꼽았다. 지난해 2위였던 거주용 주택(32.5%)은 3위로 밀려났다. 금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는 가장 큰 이유는 장기적으로 금값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다.

중장기 투자처로는 여전히 부동산 인기가 높았다. 상당수 부자는 거주용 주택을 비롯해 빌딩·상가, 토지 등은 중장기 시각에서 고수익이 예상된다고 봤다.

이들 중 75.5%는 ‘3년 이상’ 해외자산에 투자 중이었다. 선호하는 해외 투자 상품은 해외 주식(47.5%), 외화 예적금·보험·펀드(37.3%), 해외 채권(12.3%) 등이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불장에도 IMA發 증권사 양극화 심화

대형사 1조 속출·중소 1000억대 정체
거래대금 급증·리테일 대형 쏠림
IMA·발행어음 인가로 대형구조화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 등장과 정부의 증시 활성화 대책 등으로 대형 증권사와 중소형 증권사 간 양극화 현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의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1조9832억원, 순이익은 1조6761억원으로 증권업계 최초로 ‘2조 클럽’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투증권 외에도 키움증권(1조1426억원), 미래에셋증권(1조694억원), 삼성증권(1조451억원), NH투자증권(1조23억원) 등이 3분기 만에 ‘1조 클럽’을 달성했다. 반면, 자기자본 2조원 이하의 중소형사 대부분은 1000억원대를 넘기지 못했다.

총자산이익률(ROA)에서도 차이는 확연하다. 나이스신용평가 분석에 따르면 올해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의 ROA는 1.6%였지만 3조원 미만 중



ChatGPT로 생성한 ‘대형 증권사와 중소형 증권사의 실적 양극화’ 관련 이미지.

소형 증권사는 1.0%에 그쳤다. ROA는 기업이 가진 자산을 이용해 얼마나 이익을 내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대형사가 자산도 많지만, 보유 자산을 더 잘 활용해 이익을 잘 냈다는 뜻이다. 이 차이는 IMA 상품이 출시되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IMA로 조달한 자금을 IB와 대체투자 등 고수익 투자에 나설 수 있어서다.

중소형사는 자기자본을 늘려 추격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 금융

당국이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만들기 위해 2013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부터 증권사의 대형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다. 실제 몇몇 중소형사들은 자기자본 확충에 분주하게 움직인다. 대신증권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자기자본을 3조원 이상으로 늘려 종투사로 진입했다.

신승환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증권업의 기업금융 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당국은 종투사 운용규제 개편 및 추가 지정을 추진 중이며, 건전성 강화를 위한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개편도 병행하고 있다”며 “종투사 확대는 대형사의 시장지배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NCR 개편방향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열위한 중소형사는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투자여력 감소로 사업기반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신하은 기자

거래소, 전산장애·호가 폭주 시 즉시 개입

직권 호가취소·매매중단 권한 확대
동양철관 사고 후속… 시장 안정 보완

한국거래소가 전산장애나 대량 호가 유입으로 시스템 부담이 커질 경우, 해당 호가를 즉시 취소하거나 거래를 중단할 수 있는 추가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각종 거래 관련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기존보다 적극적인 개입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의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거래소는 개정안에 대해 이달 18일까지 의견을 받고, 내년 1월 12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거래소가 전산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호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기존에는 증권사가 요청해야만 일괄 발동됐으나, 앞으로는 거래소가 직접

판단해 즉각 차단할 수 있다. 장애 우려가 심화할 경우 신규·정정·취소 호가의 접수자체를 중단하거나, 미체결된 호가 잔량을 일괄 취소하는 등 조치 폭이 넓어진다.

호가 폭주 상황에서도 매매 중단이나 당일 거래 종결까지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보완된다. 그동안 대규모 호가 유입은 일부 종목의 거래만 영향을 받는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시장 전체의 안정성 차원에서 거래소가 선제적 개입을 할 수 있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특정 호가나 미체결 잔량에 대해 취소하는 방식들에 있어서 옵션을 열어두게 된 것”이라며 “시스템상 장애를 유발하는 호가가 발생하면 바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올 3월 18일 동양철관 체결 오류로 코스피 전 종목 거래가 7분간 전면 중단되는 사고가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신하은 기자

미래에셋증권, 연금평가 첫 4년 연속 우수

운용·수익률 등 전반적 우수 평가

미래에셋증권이 퇴직연금 사업자로서 전문적인 상품운용역량을 인정받으며, 4년 연속 우수사업자 지위를 유지했다.

미래에셋증권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년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서 최초로 4년 연속 우수사업자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가입자 관리 체계, 수익률 성과, 상품 운용역량 등 다양한 정량·정성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평가에서 미래에셋증권은 4개 평가항목 및 15개 평가지표 중 다수 영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사전지정운용상품을 위한 별도의 디폴트옵션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체계적이고 명확한 상품 적합성 검증 및 사후 성과 평가체계를 구축했고, 이를 통해 가입자의 수익률 제고 및 상품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 같은 성과는 과거 평가에서도 꾸준히 이어져 왔다. 2022년에는 ▲수익률 성과 ▲상품선정 및 변경 절차의 적정성 ▲적립금운용 지원 체계의 적정성 ▲가입자교육의 충실성 측면, 2023년에는 ▲수익률 성과 ▲상품 운용역량 ▲교육·정보제공의 충실성 측면, 2024년에는 ▲상품 운용역량 ▲교육·정보제공의 편의성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신하은 기자

증시 훈풍에 자산운용사 순익 129% ‘쑥’

수탁고 확대에 운용업 전반 실적 개선
공모는 호조·사모 적자 비율 증가

올해 3분기 자산운용사 당기순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129% 증가했다. 국내 증시가 훈풍을 보이면서 수탁고와 운용보수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1일 금융감독원의 ‘2025년 3분기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505개사의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은 9447억원으로 전분기(8555억원) 대비 10.4%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5323억원(128.5%) 늘었다. 영업이익

은 9963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574억원(34.8%) 불어났으며, 자기자본이익률(ROE)는 전분기 대비 1.3%포인트 상승한 21.9%를 기록했다.

운용자산(펀드수탁고 및 투자일임계약고)은 1868조8000억원으로 지난 6월 말(1799조4000억원) 대비 69조4000억원(3.9%) 증가했다. 이중 펀드수탁고는 1226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58조1000억원(5.0%) 늘었다. 공모펀드·사모펀드는 각각 43.5%(534조1000억원), 56.5%(692조7000억원)다. 투자일임계약고는 642조원으로 전 분기보다 11조

3000억원(1.8%) 증가했다. 채권형(470조4000억원), 주식형(104조1000억원), 혼합자산(25조원) 순이다.

전체 501개사(업부보고서 미제출사 제외) 중 299곳(59.7%)은 흑자를, 202개사(40.3%)는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회사 비율은 전분기(39.5%)와 유사하다. 공모운용사 적자 회사 비율은 14.1%로 전분기 대비 6.4%포인트 감소한 반면 사모운용사 적자비율은 45.2%를 기록해 전분기보다 2.3%포인트 늘었다.

수수료 수익은 1조5137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5.5%(3077억원), 전년 동기 대비 35.5%(3968억원) 증가했다.

/신하은 기자